

인산농원

—사장에 김삼삼씨 취임—

인산농원은 5월 5일 김삼삼씨가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 전 대표이사 김영오씨는 일신상문제로 사임했다.

페루 어분생산 중단

—4월 27일부터 9, 10월까지—

페루수산장관 Javier Tantalean Vanini에 의하면 페루정부는 지난 4월 27일부터 어분생산을 중지했다고 발표했다. 그는 4월중 어분 수확은 극히 부진했다고 언급하고 이번 조치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관측자들에 의하면 아마도 9월이나 10월까지 어분생산을 중단할 것 같다. 4월에는 3월에 비해 약 1억 2천만톤 가량의 어분생산이 떨어졌다. 페루정부의 어분생산 중단은 미국의 사료회사와의 경쟁에 있어 차질을 가져올 것 같다.

삼화물산

—5월 14일 사료공장 준공—

연간 36,000만톤의 생산능력을 자랑하고 있는 삼화물산 주식회사 사료공장 준공식이 지난 5월 14일 청주 본사에서 있었다. 알파사료를 생산하고 있

는 삼화물산 사료공장은 완전 자동화된 기계로 제조되고 있는데 α 화된 원료는 분쇄기에 의해 분쇄된 다음 배합될때 까지 제어장치(Control Panel)에 의하여 조정되고 완전배합된 사료는 자동계량기(Automatic Packer Scale)에 의하여 평량 자동포장기(Automatic Machine)에 의해 봉제되므로 품질 좋은 사료를 가장 합리적인 가격으로 생산하여 양축가를 위해 봉사하게 됐다. 또한 알파사료를 사용하는 양축가를 위해 최대의 애프터-서비스를 할 것이다.

이날 사료공장 준공식에는 그동안 준공을 위해 노력한 昭和産業株式會社 神戸工場長 “坂井正司”씨와 堺工業株式會社 營業部長 “松本政人”씨에게 삼화물산 사장으로부터 감사장과 株式會社 吉野製作所長 “吉野俊一”씨와 堺工業株式會社 代表 “赤坂守生”씨에는 청주상공회의 소장의 수상이 있었다.

신기 농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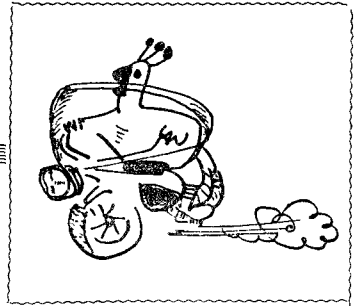
대구에 있는 신기농장(대표: 이상운)에서는 서부 인터체인지와 대구 인터체인지 중간지점에 7,000명의 남향 P.S 종계장을 건설중인데 6월말에 완공

하리라 한다. P.S는 “하바드 코메트”와 하바드 부로일러를 미국에서 30,000수를 도입하여 사육하리라 한다.

소련 추가곡물 도입이 예상된다

미농무성 당국에 의하면 소련은 6월부터 시작되는 1973년도 무역연도(1974. 6월까지) 동안 세계시장으로부터 다량의 곡물을 구입할 것이 기대된다. 이러한 전망은 1973년도 소련의 곡물수확의 증진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나타난 바있다. 소련의 구매전망은 이러한 곡물을 수송하기 위해 적합한 많은 수의 선박을 제3국과 체결된 협정서로 보아도 강력히 입증된다. 이 보고서에 의하면 소련은 6억톤으로 추산되는 곡물을 수송하기 위해 앞으로 18개월 내지 20개월 동안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선박계약 협정을 체결했다. 이러한 용적의선박에 대한 조기 체결은 미국에서 수송하려는 곡물 이외의 것이라고 미농무성은 말하고 있다.

작년도 소련은 28억톤의 곡물을 수입했는데 이는 1972년과 1973년 무역연도에 수송한 것이 대부분이다. 전체 곡물 수입중 약 19억톤이 밀이며



9억톤이 다른 곡물이었는데 이는 주로 옥수수와 보리였다.

미농무성이 믿고있는 최근의 곡물전망과 무역정보에 의하면 소련은 1972년에서 1973년도 무역년도 동안에 구입한 전체곡물량의 반 정도를 앞으로 닥아오는 무역년도에 구입할 것 같다.

코리아케미칼

동물약품판매로 신용을 자랑하고 있는 코리아케미칼상사에서는 지난 5월 19일 천호동 성혼예식장에서 그동안 수용가들에 보답하는 의미에서 학계의 전달관을 초빙하여 질병과 그 대책에 관해 슬라이드를 겸한 강연회를 개최했는데 한국 비타민과 한일사료가 후원한 이 세미나에는 약 150명의 양축가들이 참석해 경청하였다.

이날 강사로는 서울농대 한인규 박사의 가금의 영영관리, 안양가축위생연구소 계역 담당관 김순재씨의 최근의 가금질병과 방역대책,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병리담당관 정은익과장의 양돈질병과 대책에 관한 주제강연이 있었다.

한국육계회

한국 육계회는 5월 20일 제2차 모임을 갖고 임원을 선출했

는데 이날 모임에는 내객 70여 명이 참석하므로써 많은 육계생산업자들의 관심을 기울였다.

이날 선출된 임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회 장 : 이두환(전 영육부장)

부회장 : 이한순(순흥목장)

감 사 : 정한영

지역별 임원 :

이사 김휘량(상계동 지역)

이사 박명현(의정부 지역)

이사 양기천(경인 지역)

이사 최병관(한수 이남)

이철순(상보·망우·신내동)

한편 6월 20일 5시 열리는 정기총회에서는 사양및 질병 세미나도 아울러 가지게 될 것이다. 연락처는 96-9880 청량리가축약품

동방유량

동방유량의 사옥을 다음 장소로 이전 하였다.

이전일시 : 5월 20일

이전장소 : 영등포구 양평동 4가 2번지

전화번호 : 교환 62-3921~5
영업부 직통 62-6267·6277.

제일사료

제일사료는 늘어나는 업무의 원활화를 기하기 위해 새로이 인사이동 단행했는데 인사

이동 상황을 보면 최인환씨를 대전생산과장으로 장낙필씨를 군산본사 영업부로 이주상씨를 본사 생산부에 새로 특채 옥춘광, 정광용, 김동한씨를 서울사무소로 각각 발령했다.

양계협회, 현대양계 주최 공동세미나

대한양계협회와 현대양계가 주최하는 공동 세미나가 오는 6월 15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축협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강사는 일본 오사카대학 교수인 마릭병백신의 개발자 加藤박사와 광견병예방의 권위자 內藤박사인데 최근 관심이 되고 있는 형광항체에 대한 진단법과 마릭병에 대한 세계연구동향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미원사료공장 준공

지난 5월 21일에 서울 영등포구 신도림동에 위치하고 있는 서울 미원에서는 일산 200톤의 대단위 사료공장 준공식을 가진 바 있다. 이날 준공식에서는 100여명의 하객이 참석하여 사료공장의 준공을 축하하였다.

당분간은 양계사료를 중점적으로 생산할 것이나 앞으로 전 품종에 걸친 사료생산을 하므로써 국내 축산발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되었다.

1973년 제1회 초생추 감별사 자격 시험

지난 5월 15일 전 초생추감별협회 주관으로 한미병아리감별학원에서 1973년도 제1회 초생추 감별사 자격시험을 실시한바 있는데 이 시험에서 해외파견 고등감별사 3명과 감중감별사 7명 을중감별사 3명의 합격자가 나왔는데 고등감별사는 500수 검정에 100수씩 5번 실시하는데 매번 8분 이내 98% 이상을 점정해야 하며 감별중 폐사가 한마리라도 생기면 불합격되게 된다.

감중 감별사는 200수를 25분 이내에 95% 이상 감별하는데 폐사는 미스로 감절하게 된다. 을중 감별사는 100수를 15분 이내 90% 이상을 감별해야하며 폐사는 역시 감절으로 한다는 까다로운 규정이 있다.

고등감별사(해외파견)는 금년중으로 구라파에 취입할 예정인데 월 1,000\$~1,200\$ 정도의 수입을 얻게 된다. 구라파에는 현재 윤중덕씨를 비롯 200여명의 감별사가 파견되어 있으며 중동아시아(이란, 터키)등엔 이기소(이란교민회 회장)씨등이 파견되어 있고 미국에 300여명이 파견되어 있으며 아프리카는 앞으로 개척할 예정이다. 제1회 감별사 자격시험 합격자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고등감별사(해외파견) : 박해창(경남 의령군), 탁필경(천호 부화장), 이동욱(영등포구 방화동)

◎ 감중감별사 : 박석우(전남 광주), 박상희(전남 나주)

엄선자(전남 광주), 이민희(전남 나주), 김영남(성동구 마장동), 박선경(전남, 광주), 박홍식(성북구 미아동)

◎ 을중감별사 : 백일미(전남 광주), 신종완(경북 의성), 최현각(성북구 방위동), 노정숙(전남 광주), 이성자(전남 광주)

—초생추 감별사 시험실시—

초생추 감별협회는 초생추 감별사 자격 시험을 오는 6월 1일 부산지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시험에서는 해외파견 고등감별사 이외에 감중, 을중 등의 등급별로 시험을 치를 예정인데 주소는 아래와 같다.

장소 : 부산진구 부전동 188~4

한국유리브리드

한국유리브리드 협회에서는 유리브리드 산하 부화장 책임자들의 질적 향상을 높이기 위해 지난 5월 26, 27일 양일간 용당산 호텔에서 자체 협의회 회원들의 강습회를 가진바 있는데 강사로는 화란 유리브리드 협회 얀센(Jansen op Dehaar) 씨와 임병규씨가 초빙되었다.

강원축산사료

강원축산사료(대표: 최석재)는 원주에 있는 공장가동과 함께 1차로 미생물사료를 생산하기로 했는데 왕겨의 섬유질을 특수균에 의해 발효시켜 섬유질을 낮추므로써 돼지사료로 호평을 인정받게 되었는데 이는 전대 축산대 황철성박사의

연구실험에서 우수성이 인정되어 널리 알려진 바있다.

소신사료공장

소신종계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소신사료 공장이 5월 15일 가동되어 일산 50톤 규모로 생산을 시작함에 따라 우선 자체 사료를 생산하여 원가절감을 시킬 수 있게됐다.

삼성사료

—대전공장을 확장—

삼성사료는 늘어나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대전공장을 확장 일산 250톤 규모의 생산을 목표로 하리라 하는데 6월중순에 가동할 예정이다.

축산관계자 9명도일

—N.R.A 초청으로—

지난 5월 8일 일본 三中, N.R.A.초청으로 일본의 양계현황과 사료수급을 돌아보기 위해 축산관계자 9명이 도일했는데 이들은 일본 동경, 북해도 지역, 지바겐등을 시찰하고 귀국한바있다. 도일했던 축산관계자 9명의 명단을 보면 다음과 같다.

박태진(사천종돈장장) 황인욱(시축산계장) 전만선(사료협회총무) 이태혁(농협사료과장대리) 오재정(홍성사료상무) 민태혁(한일사료 생산과장) 노영덕(제일사료) 이승(대한사료 기획과장) 김권(카길)

대성미생물

—N.D백신 수출계획—

대성미생물은 일본端立化學과 기술 제휴로 6월중순 부태백신을 수출할 예정이다.

버그(Berg)박사 내한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 가금 사양학의 권위인 버그박사가 오는 6월 9일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미국사료곡물협회 한국지부의 초청으로 오게되는 버그박사는 한국에서 관련기관과 전국의 양계업체를 돌아보고 두차례에 걸쳐서 강습회도 가질 예정이다.

대한양계협회와 미국사료곡물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이번 강습회는 6월 22일(금)대구, 6월 28일(목) 서울에서 실시되며 주로 부화장과 양계장의 사양관리면에 역점을 두고 강의할 것으로 보이며 관련인사의 많은 참석을 바라고 있다.

<버그박사 일정>

6월 11일(월) : 미국사료곡물협회, 농수산부, 한국사료협회, 대한양계협회 방문

6월 12일(화) : 축산시험장,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한국카아길사료공장(수원), 안양가축위생연구소 방문

6월 13일(수) : 인산농원, 퓨리나코리아(사료공장, 부화장), 소신중계원, 대한사료축산사업장 방문

6월 14일(목) : 한협가금육종, 함일농장, 영육농장 방문

6월 15일(금) : 한국카길중계장(평택), 한일농원(오산), 향촌목장 방문

6월 18일(월) : 부산퓨리나코리아사료공장, 부산농협사료공장 방문

6월 19일(화) : 부산 협동 부화장, 한국축산김해농장, 방문

6월 20일(수) : 경주지방 양계장 방문

6월 21일(목) : 영남대학교, 대구축협, 신기농장, 칠성부화장 신성부화장 방문

6월 22일(금) : 오후 2시 대구 강습회

6월 26일(화) : 대한양계협회 방문

6월 27일(수) : 양계인과 상담(相談)

6월 28일(목) : 오후 2시 서울 강습회

6월 29일(금) : 미국사료곡물협회, 농수산부 방문

삼성그룹

—용인단지 종돈 145마리 입식—

삼성그룹의 용인개발단지에 입식될 종돈 145마리가 22일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이번 도착된 것은 지난 7일 146마리의 종돈을 들여온데 이어 두번째가 된다. 이번에 들여온 종돈은 랜드레이스 숫놈 3마리, 암놈 123마리, 「라지화이트」 숫놈 3마리, 암놈 4마리, 라지화이트 숫놈 6마리 암놈4마리 험프샤 숫놈 3마리 암놈 4마리, 듀록크 숫놈 2마리등이다.

대한사료

사료공장, 중계장, 부화장, 비육우사업장, 양돈사업장, 대한싸이로등으로 종합 축산회사의 면모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대한사료는 지난 3월 A.I.D 자금으로 도계시설을 도입 경기도 광주군 낙생면(판교 인터체인지부근)에 1일 10,000수 규모의 도계공장을 6월에 착공

9월에 준공할 예정인데 생산된 부로일러는 부분육으로 처리하여 거의 전부 일본에 수출할 예정이다. 한편 도계장 건립으로 전 경북축산 도계 생산과장 김길용씨를 생산과장으로 특채하여 앞으로의 업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사료는 경기도 부천군 소래면 무지리에 G.P.S농장을 건립하고 Pilch 88A 2,000수를 도입 금년말부터 P.S를 분양할 예정이다.

6회 동아자연과학 장려금 전달

—오봉국(서울농대), 홍기창(고대농대) 교수에—

동아일보사는 지난 10일 제 6회 동아자연과학 장려금을 받게된 연구자 명단을 발표했다. 축산분야에는 서울농대 오봉국 박사와 홍기창 박사가 받게 되었다. 오봉국 교수는 산란계의 합리적 육성방법개발에 대한 연구로서 이 연구가 결실되면 사료비 10~20%가 절감되고 폐사율은 5~10%가 줄어들 것이다. 한편 고대 농대 홍기창교수는 한국 수수의 사료화에 관한 연구로 한국축서(蜀黍)품종의 청산과 탄닌함량 및 재생력에 관해 중점적 연구를 하여 축산채산에 맞는 먹이를 개발하리라 한다. 두 교수의 연구가 결실될때 과학립국(科學立國)으로서의 새로운 면모를 다질 것이다.